

보도자료

2010년 4월 8일(목) 오전 12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정책총괄과 양환정 과장(☎750-2110)
정책총괄과 이재형 서기관 (☎750-2111) jlee@kcc.go.kr

미디어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

-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시중)는 4.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「미디어 산업 발전전략」을 보고함
- 방통위가 발표한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은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모바일 콘텐츠 등 새로운 산업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,
 - 무선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, 인프라 부족,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와 같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
- 첫째,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,
 -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모바일 금융결제,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규제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,
 -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는 악성댓글 피해방지 등 법제정 취지, 외국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,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겠음
 -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쓰고 남은 잔여 데이터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 개선을 유도

□ 둘째,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,

- 금년 중에 무선랜 이용가능지역을 2배로 확대하고,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은 2011년까지 전국 84개 시(市) 지역으로 확대하겠음
- 또한, 고품격 실감방송, 미래 인터넷, 모바일 통합망 등 미래 유망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총 5천억원을 지원
-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'10.4월까지 3개 대역(800MHz, 900MHz, 2.1GHz) 총 60MHz의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를 선정
 - 선정된 사업자는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을 위해 시설구축 및 장비 구매에 향후 7년간 약 3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

□ 셋째,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미디어-콘텐츠 기업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,

- 케이블방송사와 채널사업자간 프로그램 공급 거래 개선을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,
 - 수신료의 25% 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추진
-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간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의 세부유형을 관련법령(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)에 구체화
-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제도 개선을 위해 외주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제작비 산정, 수익배분 등 외주제작 공급기준을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

[첨부]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

/끝/